

레오에게 세상은 너무 환하고, 너무 시끄러운 곳입니다.  
'난 잘못된 행성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  
오늘도 레오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런 레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레오도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요.



레오는 늘 피곤하고,  
외로웠습니다.


‘마야’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마야는 '문어'입니다.

"문어는 다리가  
여덟 개이고, 심장이 세 개나 있어.  
그리고 앵무새처럼 부리도 있단다."  
문어 사육사인 에드거 아저씨가  
알려 주었어요.



'꼭 외계인 같아.'  
레오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외계인 같다고 느끼는데,  
우리 친구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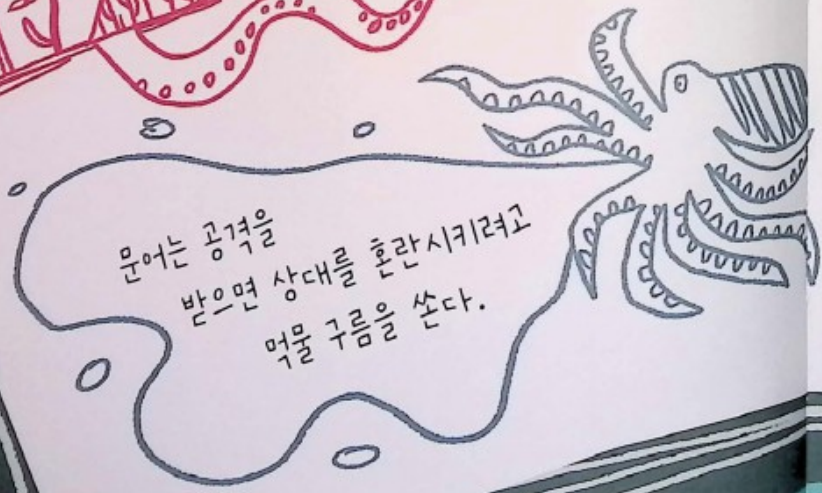
레오는 책을 좋아해 아는 것이 많았지만 문어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 레오의 문어 사전

문어는 약 3억 년 전부터  
있었다! 공룡보다 훨씬 전부터!  
달팽이와 먼 친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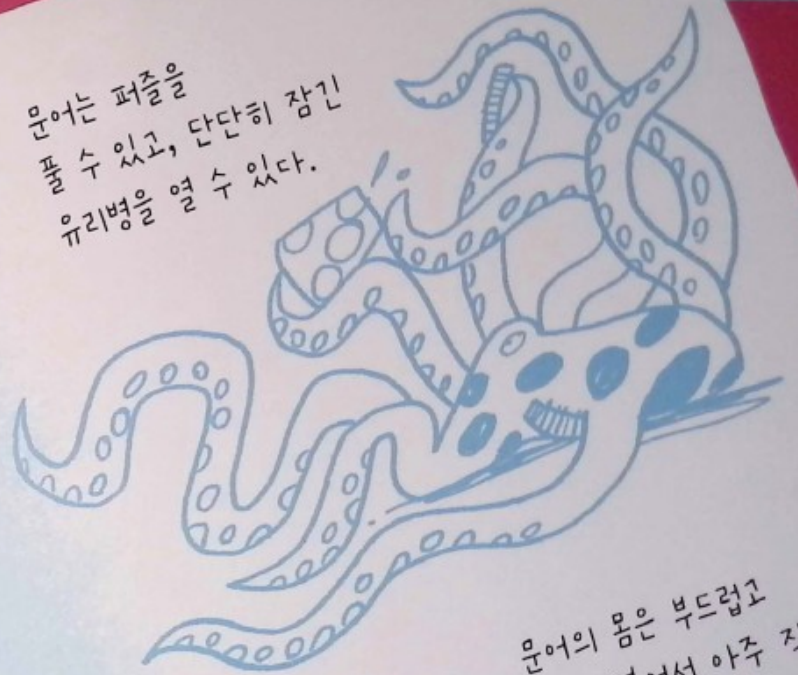


문어는 스스로 모습을  
바꿀 수 있고, 피부색과  
촉감을 마음대로 바꿔  
기분을 나타낸다.



문어는 공격을  
받으면 상대를 혼란시키려고  
먹물 구름을 쏜다.

문어는 퍼즐을  
풀 수 있고, 단단히 잠긴  
유리병을 열 수 있다.



문어의 몸은 부드럽고  
뼈가 없어서 아주 작은  
틈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



'마야와 나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책을 읽으면서 레오는 마음먹었습니다  
우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번 친해져 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  
레오는 마야를 만나러 다시 수족관으로  
갔습니다. 레오는 에드거 아저씨에게  
문어에 대해 알게 된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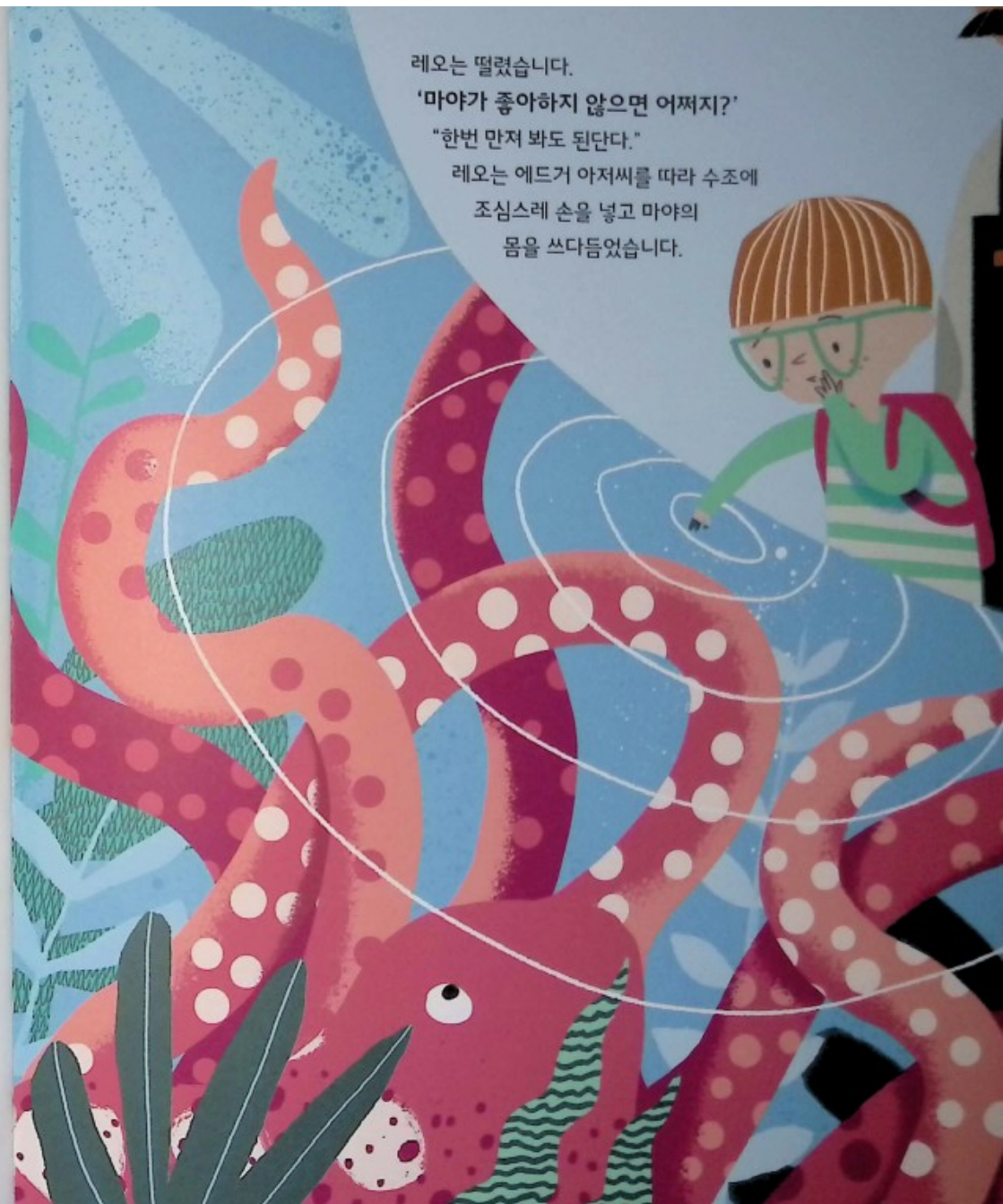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레오의 노력에 감동 받은 아저씨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레오, 마야를 더 가까이에서 만나 볼래?”

레오는 떨렸습니다.

‘마야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한번 만져 봐도 된단다.”

레오는 에드거 아저씨를 따라 수조에  
조심스레 손을 넣고 마야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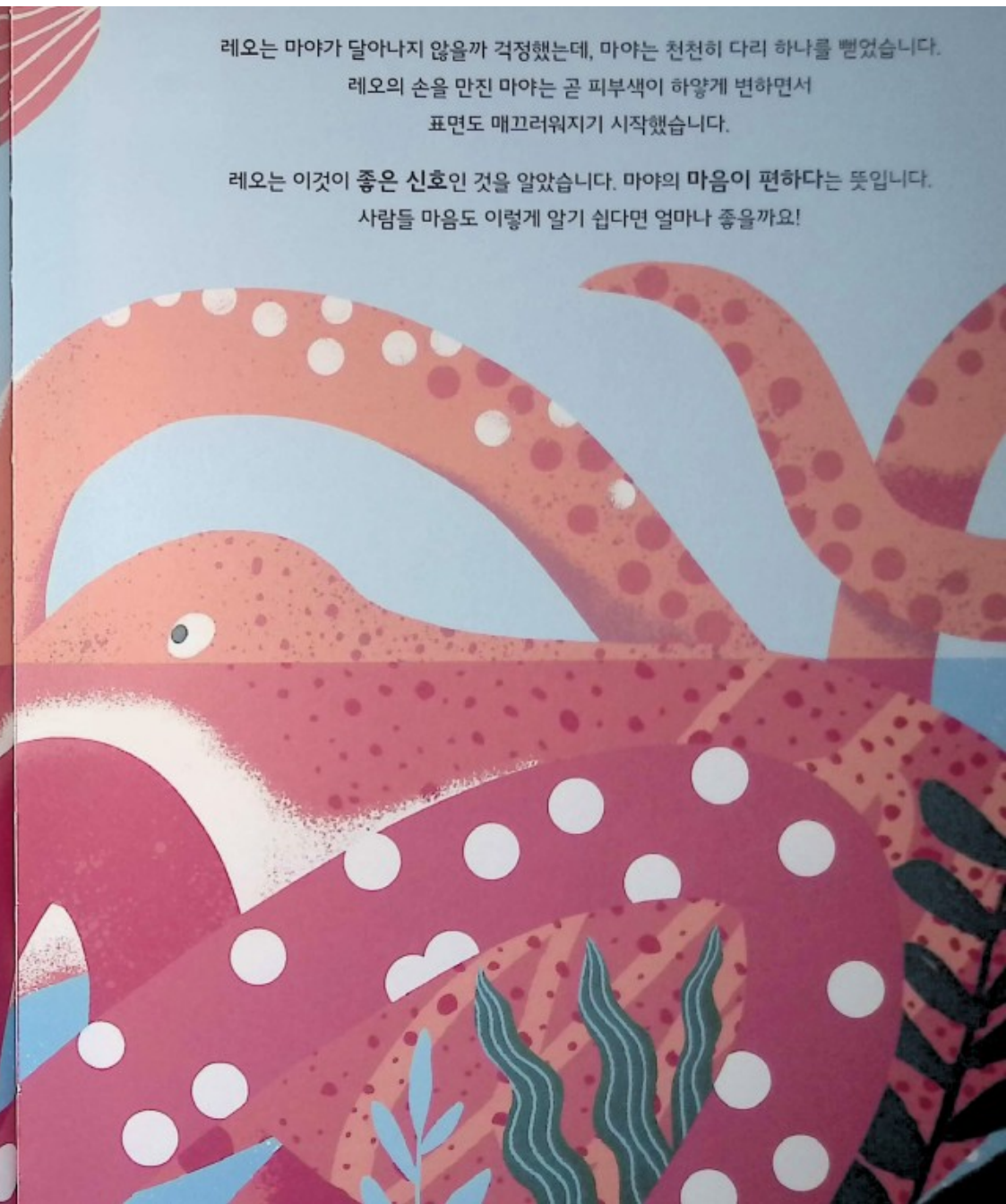






레오는 마아가 달아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마아는 천천히 다리 하나를 뻗었습니다.  
레오의 손을 만진 마아는 곧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표면도 매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는 이것이 좋은 신호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아의 마음이 편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마음도 이렇게 알기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야가 널 좋아하는 것 같구나.”  
 에드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는 거 언제?”  
 레오는 신났습니다. 이제부터 금요일은 문어의 날이 될 테니까요!

레오는 금요일마다 마야에게 줄 새로운 퍼즐을 준비해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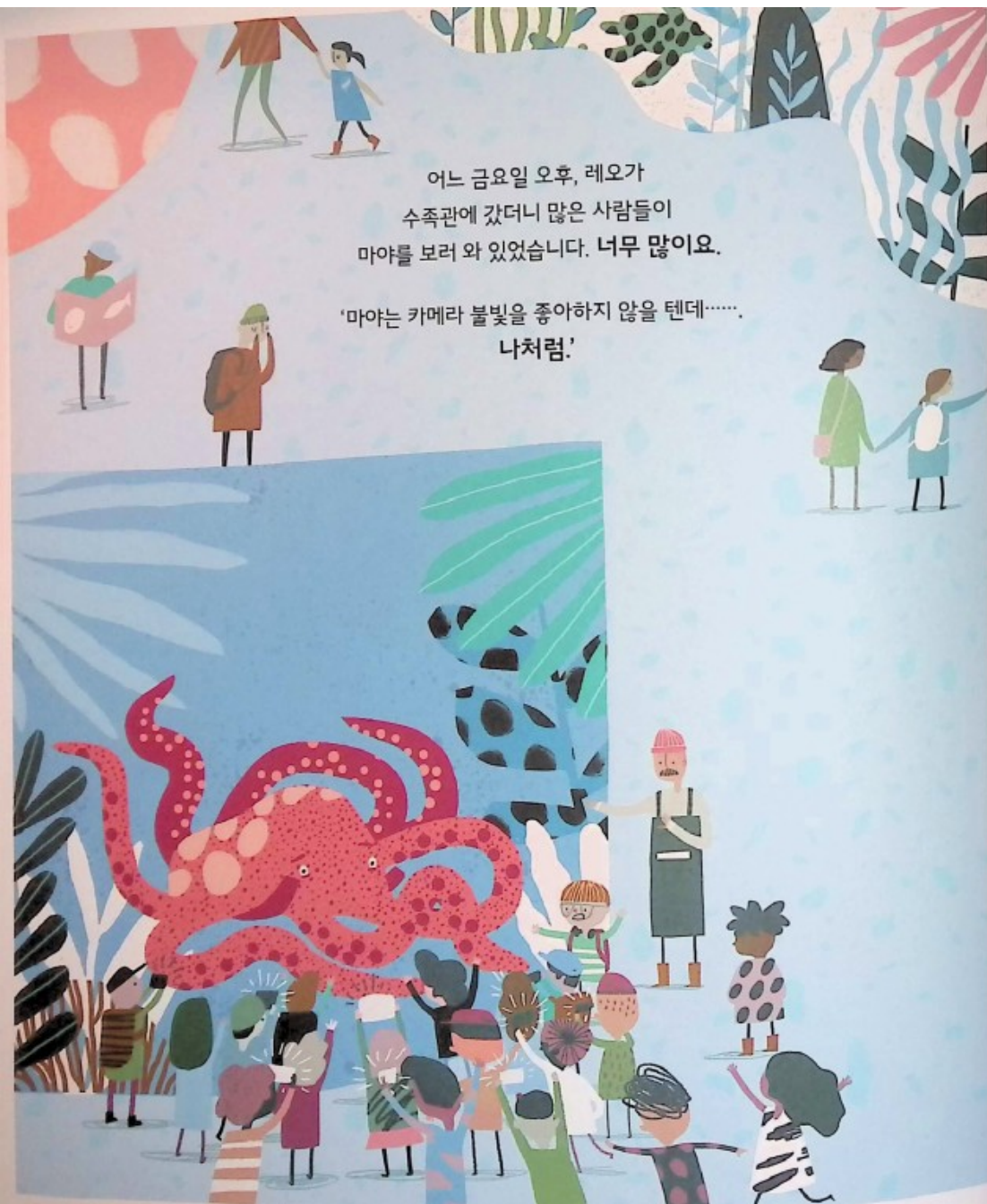
어려운 퍼즐.

아주 어려운 퍼즐.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퍼즐.

마야는 모든 퍼즐을 다 풀어냈습니다.









푸-우우우!

사람들에게 차가운 물을 뿜어 대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레오는 마야의 기분이 어떨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레오도 괴롭히는 친구들을 쫓아 버리고 싶을 때 물을 확 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레오는 마야가 선글라스를 쓰면 어떨까 상상했습니다. 마야에게 맞는 선글라스는 없겠지요. 그래서 대신 표지판을 세워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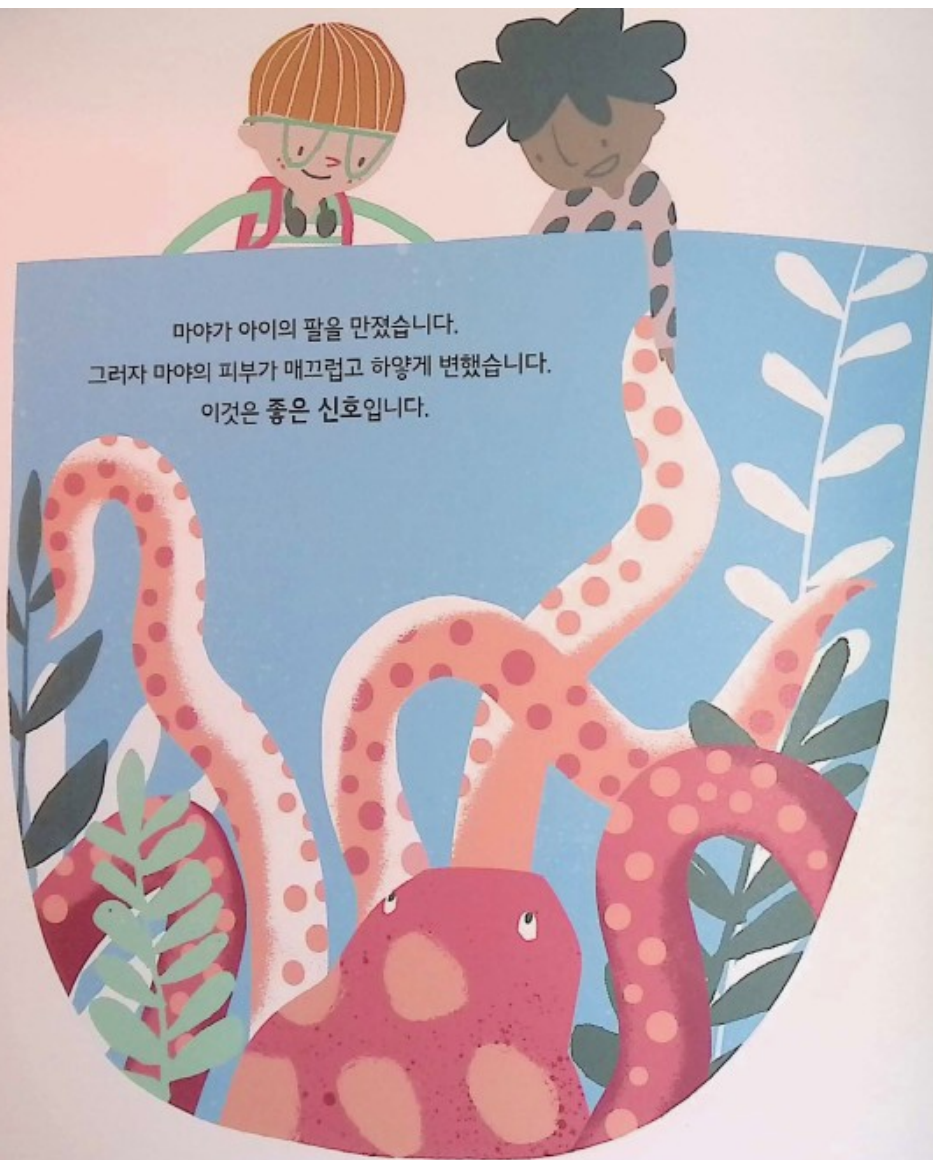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한 아이만 빼고요.



"마야는 다리가 여덟 개, 심장이 세 개,  
그리고 앵무새처럼 부리도 있어. 가까이 가서 한번 볼래?"  
레오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외계인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응! 만나고 싶어."





마야가 아이의 팔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마야의 피부가 매끄럽고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마야가 널 좋아한다는 뜻이야.”  
레오가 아이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레오는 우산 모양의 귀여운 문어와  
산호처럼 변장하는 똑똑한 문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슈퍼맨처럼 생긴 담요 문어와  
껍질 안에 들어가 떠다니는  
집 문어에 대해서도요.

아이는 레오가 문어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할 때까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레오는 이제 우정이 뭔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신호라는 것도요.